

강진 고려청자 운반선 '온누리호' 김종열 선정

“고려시대 뱃길 재현... 남북 교류협력 기여할 것”



“천년 전 고려시대 당시 강진고려청자 운반선을 복원한 ‘온누리호’의 선장을 맡았다는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강진고려청자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온누리호”의 선장을 맡은 김종열(55·강진군 경제발전 팀장)씨는 “천년 전 고려시대 뱃길을 재현해 역사·문화적으로는 물론 남북간 교류협력증진에도 기여하게 노력하겠다”고 탐사 소감을 밝혔다.

온 세상을 누빈다는 뜻의 ‘온누리호’는 지난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앞바다에서 인양된 고려청자 운반선을 모형을 견조했다.

배의 규모는 길이 19m, 너비 5.8m, 깊이 2.2m로 고선박전문가의 자문과 문헌, 기존 수중 발굴된 5척의 고려시대 고선박을 참고, 옛 청자 운반선의 구조 및 형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

었다.

1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이번 항해에서는 7.3~7.8노트로 운행할 예정이다.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온누리호’는 강진을 떠나 태안 안면도, 안산 여흥도와 강화도 인근 북방한계선(NLL)까지 갔다가 오는 8일 강진청자축제에 맞춰 귀환할 예정이다.

청자운반선을 복원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뱃길을 재현한 것 또한 최초의 일이다.

김 선장은 “애초 개성까지 항해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북방 한계선(NLL)인 강화도 곶돌까지 왕복 1천km를 항해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천년 전 뱃길을 그대로 가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뱃길재현 항해에는 승무원과 각계 전문가

가 30여명이 승선했으며 청자 300여점을 뱃머리 쪽 선실 바닥에 뱃줄을 깔고 대나무와 새끼줄로 묶어 고정된 채 안전하게 놓았다. 뒤편엔 과거의 배처럼 밀 부문을 뚫어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다.

“온누리호”는 4일 오전 전북 격포항에서 ‘청자 운송무사항해기원제’를 지내며, 다음날에는 충남 태안 안흥항에서는 살포이출항 진도곶길곳 보존회의 진흥제가 펼쳐지는 등 각 항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선장은 “강진이 청자로 유명한 것은 청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흙과 가마를 땀 나무가 풍부하고 해상 수로가 발달했기 때문이었다”며 “남씨가 좋은 만큼 귀환할 때까지 임무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기자 kps@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국제과학문화 교류센터 과학꿈나무 학술대회



(사)국제과학문화 교류센터(센터장 박행순·전남대 교수)는 3~7일까지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과학꿈나무 상상실험 모의학술대회’를 진행한다. (국제과학문화 교류센터 제공)

광주시교육청 원어민초청 영어체험캠프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광천영어체험센터 등 5곳에서 초·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초청 영어체험캠프(EECN)를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산구 청학동서 전통예절캠프 출정식



광주시 광산구(청장 전갑길)는 최근 지리산 청학동 캠프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전통예절캠프 출정식을 가졌다. 초등학교 40여명은 오는 8일까지 전통문화체험, 리더십 양성, 창의학습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게 된다. (광산구청 제공)

‘왕의 남자’ 이준기 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에

배우 이준기(27)가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에 위촉됐다고 이준기 소속사인 멘토엔터테인먼트가 4일 말했다.

영화 ‘왕의 남자’,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일지매’ 등을 통해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높은 이준기는 지난 5월 중국에서 두 차례 콘서트를 개최해 1만명을 모았고, 7월 일본 콘서트에서는 9천명을 동원했다.

이준기는 “우리나라를 홍보할 기회가 생겨 무척 자랑스럽고 이번 기회를 빌려 더욱 발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5일 관광공사 본관에서 진행되며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지역 인원이 취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은선 세계 여성산악인 첫 8천m 13좌 등정

히말라야 가셔브룸 I 성공... 14좌중 안나푸르나만 남아

여성산악인 오은선(43·블랙야크)씨가 히말라야 8천m 14좌 완동에 단 1개 봉우리만을 남겨놓았다.

오씨는 3일 오후 4시16분(한국시간)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해발 8천88m 가셔브룸 I 꼭대기에 올랐다고 오씨의 후원업체인 블랙야크가 알려졌다. 이날 새벽 4시15분 캠프3(7천200m)를 출발한 지 12시간 만이다.

오씨는 이번 등정 성공으로 세계 여성산악인 최초 히말라야 8천m 14좌 완동 기록에 한 걸음 다가섰다. 오씨가 아직 오르지 못한 8천m 봉우리는 안나푸르나(8천91m) 뿐이다.

현재까지 세계 여성산악인 중 8천m 13개 봉우리에 오른 이는 아직 없어 오씨의 기록 달성이 유력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의 켈린데 칼텐부너, 스페인의 에드루네 파사반이 이날 현재까지 12개 봉우리에 올랐다.

오씨는 지난해 초 남파파르밧(8천125m) 등정에 성공한 뒤 곧바로 가셔브룸 I에 도전할 계획이었지만 14좌 완동 경력을 벌이던 고미영 씨의 추락사를 계기로 등정 일정을 2주 가량 늦췄다. 오씨는 이날 중순 귀국한 뒤 안나푸르나 등정 일



정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티베트 방언으로 ‘빛나는 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셔브룸산군은 1봉부터 6봉까지 아브루체 빙하를 말굽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제 1봉(가셔브룸 I)은 아브루체 빙하에 도착할 때까지는 다른 산들에 의해 숨겨져 있어 ‘히든피크(Hidden Peak)’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연합뉴스

“차지철이 나라 망친다며 김재규, 10·26사태 계획”

이만섭 전 국회의장 회고록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다 1963년 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8선의 의원을 지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박정희 정권의 비하를 담은 회고록 ‘5·16과 10·26, 박정희, 김재규 그리고 나’를 발간했다.

이 전 의장은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부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이 전 의장은 책 서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정치적 스승이었고 김재규 부장은 나의 중학교(대구 대륜중) 스승이었다”며 “김 부장은 박 대통령의 고향 후배였으며 육사 2기 동기생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전 의장은 중앙정보부장의 대통령 시해라는 10·26 사건에 이른 박정희 정권의 비극을 차지철 경호실장의 권력 2인자로서의 군림과 이에 따른 권력 내부의 갈등에서 찾았다. /연합뉴스



박명길 전남대 교수

美 조류학회 우수논문상

전남대 박명길 교수(해양환경전공)가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2009년 미국조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인 프로바솔리 어워드(Provasoli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조류학회(Journal of Phycology)에 한 해 동안 발표된 논문 중에서 저널 편집위원회의 심사와 투표를 통해 최고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저자에게 주는 것으로, 조류학회 첫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루이지 프로바솔리(Luigi Provasoli)를 기념하기 위해 1984년에 제정됐다.

박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해양 미생물인 ‘디노피시스 카우다타’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을 경우 나타나는 염색체 변동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네티즌 선정 한국 대표작가에 공지영씨

소설가 공지영(46)씨가 네티즌이 뽑은 올해 ‘한국의 대표작가’로 선정됐다.

인터넷서점 YES24는 지난달 10~31일 네티즌 4만5천984명을 대상으로 ‘제6회 네티즌 추천 한국의 대표작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지영이 17.8%(복수응답 가능)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말했다.

공지영은 최근 몇 년간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즐거운 나의 집’, 산문집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일 하나’ 등을 잇달아 히트시켰으며 최근에는 장편소설 ‘도가니’로 사랑받고 있다. 공지영이 이어 소설가 김훈(13.7%), 이문열(12.9%), 최인훈(8.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함께 진행된 ‘한국의 젊은 작가’ 부문에서는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의 박현욱씨가 18%로 1위를 차지했고, 김발아, 김영하, 박민규 등도



많은 표를 차지했다.

“2009 한국인 필독서”에서는 시 부문에 신경림의 ‘낙타’가, 소설 부문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각각 15.9%, 26.7%로 1위를 뽑았다. /연합뉴스

과학축전 개막식 참석

김문수 전남대 총장은 4일 오전 경기도 일산 한국국제 전시장(KIN-TEX)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 과학축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지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 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9일(토) 오후 2~5시 광주대 중앙도서관 5층. 수맥·나경·입향론·지도상명당 등 이론과 현장 제시(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효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

- 합). 062-365-8228.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모집

-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

-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인 관련 자격증소지자 우대, 아이돌보미 25명 모집. 5일까지 방문접수 서구 양외동 385-20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369-0074~75.
- ▲사랑의 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 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검정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 모집=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이돌보미 모집=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서구 거주자, 보육교사,

- 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제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 ▲디딤돌 장애인야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차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 모집=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연습장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 ▲늘 기쁜 지역 이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놀이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감성생 모집=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 ▲장애인 체육 동호인 모집=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후 신청. 062-384-5544.
- ▲놀이매 ‘신명’ 단원 모집=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 방문 목욕 신청자 모집=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 ▲광주 아버지합창단원 모집=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 한국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380-3042.
- ▲윤계숙씨 별세 김길성(마약퇴치운동본부)·유성·영희·향례씨 모친상 정중옥(토양건설 소장)·이진현(목포홍일고 교사)씨 빙모상=발인 5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 ▲양순혜씨 별세 류연철·연창(류가람건축(주)대표)·연길(류비노기과원장)·영희씨 모친상=발인 5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문규선씨 별세 성용·경혜·지영씨 부친상=발인 5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두번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선진국형 5대시스템 프리드 15년 현대중합상조 카피본리 1566-4499